

[종합·해설]

여야 후보들 '老心'잡기 주력

요양원·복지시설 찾아 노인들 발 씻겨주기 일자리 창출·실버지구 조성 등 공약 발표

지방선거 각 후보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어른들 표심잡기에 전력 기울였다. 이들은 8일 하루 동안 노인시설을 방문하는가 하면 노인복지 정책을 앞다퉈 쏟아냈다.

박광태 광주시장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5개 구청장 후보, 광역의원 후보들은 이날 노인요양시설인 배필요양원을 찾아 노인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행사를 갖고 노인들을 위로했다.

박광태 후보는 이날 행사에 앞서 '효사랑' 공약을 발표하고 ▲노인무료요양시설 대폭 확충 ▲경로식당 무료식당 급식단가 인상 ▲구동체육관 부지에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빛고을 시민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다.

오병용 광주시장 민노당 후보도 '노인주치의 제도'와 '노인요양도우미', '노인전담취업장 개설' 등의 노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조영택 광주시장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는 인제정 국회의원과 함께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카

네이션을 달아준데 이어 신암근린공원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했다.

이와 함께 박준영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도 이날 화순군 노인복지시설인 소향원을 방문해 어른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가졌으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남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범석 전남지사 열린우리당 후보도 이날 경로잔치와 노인복지 시설 방문 등 현장을 찾아 어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응급구조출서비스제도와 노인복지기금 조성·연금생활자 귀향에 대한 지원 등 노인복지정책을 발표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시설 서비스 확충안을 제시했다."

송광은 민주당 북구청장 후보는 이날 노인시설을 방문한데 이어 9일에도 광주 향교 북구 유도회를 방문하고, 노인시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도 '노심'을 사로잡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 고양 소재 일산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당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 적극 추진 방침을 밝힌 뒤 노인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고당세계꽃박람회를 관람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만큼 높고 큰 사랑을 없을 것"이라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시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어버이날 논평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관련 시설과 예산의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중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민노당은 우리 사회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일산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효도하는 지방정부' 행사에 참석,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 위) 서울 동국대 민해광장서 열린 건학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부채로 따가운 햇살을 피하고 있다. /연남스

5·31 지방선거 현장

정동영 당의장 來光 선거 지원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이 9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지방선거 지원에 나선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 광주시 동구 관산동 광주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을 방문, 문화중심도시 조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 원각사를 찾아 불교계 인사들과 만담한 뒤 오후 6시30분 광주지역 대학 총장단과 만찬을 갖는다.

10일에는 기아자동차와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 여론을 청취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다.

한편 정 의장은 지금까지 여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이날 이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은 소지역주의 부추기지 말라"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영석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장인 장영달 의원이 '일 호남을 분열시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며 "이는 소지역주의를 부추겨 전복의 표심을 얻으려는 수법으로 군사정권이 자행해온 악랄한 지역분열 수법을 답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지금까지 광주·전남에 빼앗겼던 호남 몫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고, 광주·전남의 정치인이 전복을 지배하려는 오만한 자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현구씨 후보 단일화 제의

○공천탈락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신현구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8일 "열린우리당과의 한판 승부에서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후보단일화가 유일한 방법"이라며 민주당 전주인 서구청장 후보에게 후보단일화를 제의했다.

신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후보를 전락공천한) 민주당 유종택 광주시장 위원장이 사퇴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나와 전 후보 중 열린우리당 김중식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도당 선대위 발대식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8일 도당 강당에서 박재순 전남지사 후보와 주요 당직자,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전남도 선거대책위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선대위원장에게 신현종 전 지부장 위원장과 선대본부장에 최수석 도당 수석부위원장 등 각자 임명됐으며, 홍보·청년·여성·디지털·불법선제감시 등의 선거조직을 출범시켰다.

박 후보는 "도지사선거에 '사극쟁'의 각오로 뛰고 있다"며 "어려운 정치여건이지만 당직자, 당원 개개인이 모두 후보자라는 심정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진선수씨, 광주시장 후보 재선출 요구

○진선수 광주시장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후보를 검증해야 할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와 여성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검증절차도 없이 특정당에서 시의원비례대표에 낙선한 여성을 전락공천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보 재선출을 요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전남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광주일보·KBC 공동
광주일보는 KBC와 공동으로 9일 오후 5시 50분부터 한 시간동안 '전남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KBC 4층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4당 도지사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호토론을 통해 도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토론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는 ▲임기내 일자리 10만개 창출 ▲전남에듀토피아 프로젝트 ▲농어업을 지식에 기초한 2차산업으로 전환, 민주당 박준영 후보는 ▲전남 전지역

을 중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조 1항(공무원 단체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에 의거, '5·31 매니페스토 전남추진본부를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본부에서 통보했다.

이를 추진본부에서 통보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선관위측의 통보에 따라 논의를 거쳐 향후 활동을 중단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주 前의원들 '黨 구하기' 나섰다

중앙당 SOS 요청에 간담회 갖고 선거 지원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희망은 더욱 절실한 법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십시오."

'버스 당사'로 내려 앉은 민주당이 전직 의원들에게 SOS를 쳤다. 민주당은 8일 오전 중앙당에서 '민주당 전직 의원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부탁했으며, 이에 전직 의원들도 공감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사를 방문한 전직 의원들은 목이 메었다.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의 분당 과정에서 떠났던 당사 임대료 때문에 선관위의 국고보조금도 차입당하고 현재의 당사에서도 쫓겨나 지방선거 기간 버스 당사에서 당간간 생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직 의원들의 간담회는 자연스럽게 열린우리당의 성토장이 됐다. 함승희 전 의원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이유가 있다면 배신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배신당'과 분명한 각을 세워 나가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을 비난했

다.

동교동계인 김옥두 전 의원도 "민주당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권 창출이라는 뜻을 피운 정당"이라며 "배신의 아픔을 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중앙당 당직자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메어왔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조건도 잊었다. 박상천 전 대표는 "중대 이슈의 선점이 중요하고 민주당 지지의 필요성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장재식 전 의원도 "경제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수 전 의원은 "공천을 최대한 막고 지방선거에 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정철기 전 의원은 "당과 협의 아래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직 의원들이 미련하나마 민주당을 위해 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민주당이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민주당내에 '일외 의원총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전직 의원들의 애정 어린 충고를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무원노조 참여 단체 매니페스토 운동 안된다"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운동(참공약 선택하기)이 선관위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가 구성한 '5·31매니페스토 전남추진본부'는 8일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위해 준비해 왔던 매니페스토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활동

봉선동 영무플러스존 상가 입주자 모집공고

1. 건축물 분할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의거 97년 12월 2006-건축분할신고-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2. 대지의 지번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38-2번지의 5필지
3. 건축물 면적 : 11,691.28㎡
4. 건축물의 총별 용도

구분	용도
지상 1층	일용품, 근원, 음식점
지상 2층	임원
지상 3층	교육연구 및 복지
지상 4층	공용시설

5. 분양사입사, 분양대행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8-3 6층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55-9 2층
주식회사 하이탑플러스 주식회사 엠엘디플러스
대표이사 허 옥 현 대표이사 김 관 태

■ 시공업체
화순군 농주면 잠정리 7-18번지
서해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현 맥

6. 분양대금의 관리주체
예금주: 주식회사 하나노 저축은행
은행명: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5-901-045984

7. 선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주식회사 다들부동산인타
대표이사 이 병 철

8. 연대보증사
전남 담양군 부정면 봉안리 632-1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714-2 2층
주식회사 남흥건설 임현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현 문 대표이사 박 정 곤

9. 준공 및 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 2006년 8월중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보증금 및 잔금은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경우 선납금인도 적용하지 않음

10. 피분양자 모집기간 및 선정일시
모집기간: (2006. 5. 8~2006. 5. 10) [9일간, 시간: 09:30~16:30]
선정일시: (2006. 5. 11) [1일간, 시간: 15:30~18:00]

2006년 5월 8일

서울: PLUS (주)엠엘디플러스 (주)하이탑플러스 서울사: 177 서해토건(주) 3부메다움

ARS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세종비즈니스리서치에서 개발한
휴대폰문자발송 자동프로그램

한 번에 "1000개" 를!

이젠, 대한민국 선거사상 최초로
선거홍보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 대량발송에 관한
질약 응당 내용 선거법에
저법범을 인정받음!

선거법 '82의 5조'를 적용한 문자전송 실예

- ✓ 선거운동정보 명시
- ✓ 수신거부 및 무료번호 명시

www.vote21.co.kr
광주·전남지사 한솔에드플
Tel.062-381-7702, 381-5055
H.P.010-4660-0993